

문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만 되도 큰 의미”

윤영찬 수석 프레스센터 브리핑...비핵화 진전 의지 피력
김정은 핵 신고 약속 최상 시나리오...연내 종전선언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길에 나서면서 북미대화 재개 목표를 첫머리에 거론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논의에서 진전을 거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발표까지 됐다가 전격 취소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의 재방북 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연결할 비핵화 조치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부터 끌어내는 것을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인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 조치의 선후(先後)를 둘러싼 중재 방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시해 동의를 얻어내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대안실장도 지난 6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중략)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예고한 바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핵 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약속을 문 대통령이 받아낸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과민’ 반응을 고려하면 영변 원자로 등의 가동중단과 폐쇄, 좀 더 나아가면 불능화 약속 등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로도 북한의 핵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만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불능화할 경우 북한 핵 폐기의 실질적 첫 조치로서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메시지를 받아낼 경우 일부는 합의문이나 대 언론 발표를 통해 공개하고, 일부는 이달 말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호응할 경우 연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초기조치와 종전선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의 목표인 ‘평화’에 가장 밀접한 목표는 ‘군사분야의 긴장 완화’ 조치다.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는 남북이 미국 등 주변국과 논의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합의문에 군사분야의 구체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된 비무장지대 GP 시범철수나 공동경비구역 JSA의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공동취재단·서울=임동욱 기자 tuim@

헌법재판소 사상 초유의 4인체제

5명 오늘 임기 만료...재판관 인선절차 마무리 안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9일 끝날에도 불구하고,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를 제때 마무리되지 못해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으로 일시적이지만 사실상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19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헌재를 떠나지만, 신임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임명은 20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만약 국회 표결이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뤄

지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재판관 공백은 더욱 길어진다.

실상가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도 제때 이뤄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보고서 채택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신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두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추측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

美 수출 화물차 관세 20년 더 유지

정부 한미 FTA 개정안 의결...음주 자전거 범칙금 3만원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운전 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음주측정 불응 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10만원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미FTA 개정안은 당초 미국이 2021년 1월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

해 2041년 1월1일에 없애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ISDS)의 중재소 방지 내용 등을 담았다. 정부는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

를 밟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과 함께 자동차 운전자가 경사진 곳에 차량 주-정차 후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석을 떠났을 때 범칙금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28일부터 적용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1회 적발 시 범칙금이 3만원이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범칙금 차등은 없다.

정부는 또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여권 명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만료예정 사실을 통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교부는 내년부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 안내할 계획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평화와 협력의 시대 열 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평양 순안공항 도착 장면 중계를 시청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만남 감격적” vs 한국당 “비핵화 진전 있어야”

정치권 반응 온도차

여야 정치권은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봤지만 반응에는 온도차가 났다.

당 대표가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방북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은 기대 섞인 반응을 내놨지만, 동행을 거절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표실에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하며 평양 순안공항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나 나타나자 “오”라는 탄성을 질렀다. 또 문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할 때는 박수를 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1년 사이에 3차례나 정상회담을 했다. 남북 간 만남은 것 자체가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만나게 된 것 같다”며 “이번에 비핵화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이 함께 방북한 민주평화당도 잔뜩 고무된 분위

였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후 18년 만,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문한 지 11년 만에 평양방문이 이뤄졌다”며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는데 남북정상회담이 북미대화가 다시 진행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박수를 치며 생중계를 지켜봤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날 때마다 매년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의 역사적 만남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고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의 밑거름

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북길 동행을 거절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생중계를 시청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 모여 생중계를 시청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입에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뤄내는 구체적인 약속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북한에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회담이 잘됐으면 좋겠다”며 “비핵화를 구체화한 계획이 합의되고, 북핵 시설 검증 리스트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문 의장 “비핵화 새로운 출발점”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18일 남북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지켜본 후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인천국제공항 의전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순안공항 만남 장면을 TV로 시청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특별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

문제에 상당한 진척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새로운 출발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해 수행원과 함께 남북정상의 만남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두 정상이 손을 잡는 순간에는 박수가 터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